

청소년 창직교육을 통한 창업의지 변화에 대한 연구: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성역량의 매개효과 확인

황교진*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이우진**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국 문 요 약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보다 창의적인 진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진로전략이 구직(求職), 즉 ‘직업을 찾는다.’는 개념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진로전략인 창직은 구직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이 직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개인이 직업을 ‘발굴하고’, ‘선택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구직이 ‘남이 나를 고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 창직은 ‘내가 나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구직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창직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직접 발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자기고용을 이루기 위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직교육 프로그램을 처치한 실험집단은 총 293명으로 검증 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자기주도 학습력, 기업가정신, 기회발견, 기회활용, 사회적 문제해결력, 창의성역량, 창업의지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값의 상승을 보였다. 창직교육 프로그램을 처치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총 85명으로 사전/사후의 평균값이 미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성역량이 매우 두드러지게 향상되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가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비교하여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성역량이 미약하게 향상되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미약하게 향상되었으나 오히려 창업의지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로 창직교육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성역량의 향상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매개변수가 되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를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창직교육, 창업의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력, 창의성역량

1. 서론

한국사회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온 국민들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였으나, 지난 60년 동안 전후세대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농림어업 및 광업위주의 1차 산업에서 서비스산업과 같은 3차 산업으로 변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많은 직업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앞으로 20-30년 후의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은

산업과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디지털혁명(Digital revolution), 로봇(robot) 기술의 급속한 성장, 3D 프린터의 발명, 사물 인터넷의 개발 등은 향후 가까운 미래에 많은 직업인들이 기계로 대체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직업세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세계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의 형태 등에 대해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미래의 직업교육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전통적인 진로개발모형은 청소년에게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 주저자,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과정, able@goodnewjob.com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drlee@kookmin.ac.kr

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적합한 직업 선택, 학과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직업과 사람들을 각각 유형화하고 사람과 환경의 합리적인 매칭작업 PEF(Person Environment Fitting)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개발모형은 일자리가 충분하고 직업세계의 변화가 심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21세기와 같은 변화의 시기 즉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시대에서는 설명력이 매우 제한되므로 더욱 더 미래사회의 환경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미래일자리 환경 변화 5대 트렌드 중 10년 후 한국의 산업구조에서는 자기고용과 창조서비스업의 증가할 것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7a).

창직(創職, Job Creation)이란,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기존 노동시장 일자리에 진입하지 않고 문화·예술·IT·농업·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적성 등에 부합한 기존에 없던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14a).

취업이 구직(求職), 즉 ‘직업을 찾는다.’는 개념이었다면, 구직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이 직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개인이 직업을 ‘발굴하고’, ‘선택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구직이 ‘남이 나를 고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 창직은 ‘내가 나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구직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4a).

약 10년 내외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활동을 해야 할 청소년들이 자기고용과 창조서비스업의 트렌드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창직교육이 매우 절실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창직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청소년의 창직·창업·기업가정신·진로교육 등에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연구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연구 배경

2.1. 창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대

창직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이다. 1970년대 말까지 대중적인 직업이었던 버스안내원은 버스에 승차 안내 자동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라진 직업 중 하나이다. 반대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 복지, 미용, 웰빙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증가 등이 직업세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교육, 판매, 의료 등 서로 다른 산업들이 융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4a).

둘째, 정보와 지식, 소비자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새로운 직업은 기존의 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생겨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 능력 등을 바탕으로 이종(異種)산업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식산업의 도래와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으므로 세분화·다양화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 등 디지털기 진화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T의 발전을 기반으로 개인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비즈니스가 대두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4a).

셋째, 대기업의 아웃소싱, 프리랜서의 증가이다.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분야의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규모를 줄이거나 핵심기능만 남기고 외부에 맡기고 있다. 시장이 급속한 변화를 겪음에 따라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가 늘어나 프리랜서와 같은 1인 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들은 사업의 기회가 생기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14a).

과거에도 사회변화에 따라 창직을 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직업에 변화·적응해왔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사회변화를 볼 때 창직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3. 자기결정 진로효능감의 중요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확신성이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 과정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전공

과 학문, 직업선택과 진로 탐색활동 및 의사결정 등에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진다(Lent & Hackett, 1987).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 보다 특수한 목표나 지각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보았다(Bandura, 198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은경 등(2016)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를 선택하고,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조은숙, 2011). 그리고 진로결정에 있어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의 시발점이며,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이은경, 2001)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진로는 개인이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개인 역량의 정도에 따라서 유용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량증진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역량이란 자신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삶의 요소로 역량을 높이는 것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시기에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적성은 무엇인지’ 등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자신이 처한 환경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면 평생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능력개발원, 2012).

권일남과 김태균(2009b)은 청소년시기에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단순히 목표의식 결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여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역량의 증진은 일생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4. 창직과 창업의지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인간의 어떠한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증명된 요인은 바로 의지(intention)이며 이는 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 창업은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획된 행동(planned behavior)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으며, 이러한 계획된 행동인 창업을 예측할 수 있

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측정하는 것이다(Katz & Gartner, 1988).

계획된 행동모델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창업발생의 모델(Model of Entrepreneurial Event)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창업행동에 대한 메카니즘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바로 의지로 설명하고 있다(Wilson et al., 2007). 이러한 모델을 창업에 적용해보면 창업의지는 주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부모의 역할모델과 개인의 성향 및 경력환경(Ronstadt, 1984; Scott & Twomey, 1988), 창업교육(장대성, 2003; Leazar, 2002)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김홍, 2012).

이렇게 어떠한 요인들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가 변화하거나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마다 개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 시대에도 꾸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앞선 선행연구에서 함의하고 있는 창업의지에 대한 의미는 앞으로 창직가가 되는 것을 의식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고용이 불안정하고 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오늘날의 시대에 스스로의 변화와 일들을 주도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는 이해를 담고 있다(김도현·정선영·이우진, 2018).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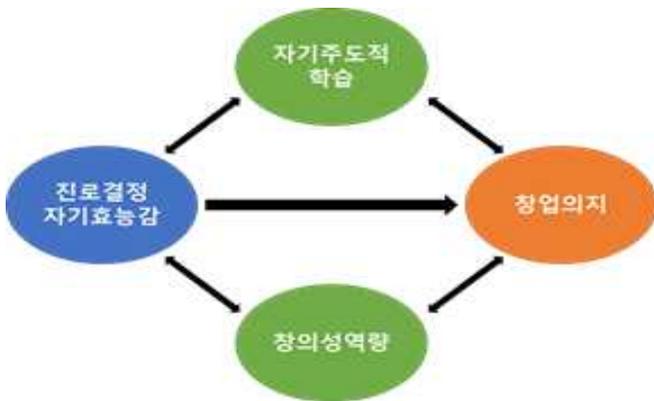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하고 있는 S₁ · S₂ · S₃ 중학교와 Y중학교의 재학생 실험 집단 162명과 통제집단 115명, 광주광역시 소재 하고 있는 G중학교 재학생 실험집단 200명,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C중학교 재학생 실험집단 180명으로 실험집단 총 542명과 통제집단 총 115명을 표집 하였는데, 이들 중 실험 도중에 전학을 간 학생과 장기 결석생, 불확실하거나 불성실한 반응 등 분석에 적절치 못한 자료들을 모두 제외하고 실험집단 총 293명과 통제집단 총 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배경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구성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N)
N		293	85	378
성별	남	196	36	232
	여	97	49	146
학년	1학년	293	48	351
	2학년	0	17	17
	3학년	0	20	20

3.2. 연구모형과 설계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에 처치한 C기업의 창직교육 프로그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목표로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성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법, 도구, 교재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그림 2>와 같이 창직교육을 통한 진로결정 효능감 향상이 창업의지를 향상시키며, 이 과정에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성역량이 매개 변수로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창직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창직교육 프로그램이며, 창직교육 프로그램의 처치가 피험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험설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설계 구성

집단	사전검사	실험프로그램 처치	사후검사
실험	O1	X1	O3
통제	O2		O4

O1 O2 : 사전검사
 O3 O4 : 사후검사
 X1 : 창직교육 프로그램 처치

3.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창직교육 프로그램에서 도출한 효과성 검증 변수 및 기존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추출한 변수들과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중요내용 28개를 하위변수로 추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9개의 변수(진로결정 효능감, 대인관계기술, 자기주도 학습력, 기회발견, 기회활용, 기업가정신, 사회적 문제해결력, 창의성역량, 창업의지)를 최종변수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 측정변수의 하위요인,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변인	세부요인	문항 수	신뢰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2	.945
	목표설정	2	
	계획수립	3	
	자기평가	4	
		11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	3	.880
	이해성	3	
		6	
자기주도 학습력	개방성	3	.952
	자아개념	2	
	내재적동기	2	
	자율성	2	
	자기평가	4	
		13	
기회발견	기회발견	4	.909
기회활용	기회활용	4	.915
기업가 정신	혁신성	3	.909
	위험감수성	2	
	진취성	2	
		12	
사회적 문제해결	문제규정	3	.926
	의사결정	3	
		6	
창의성 역량	협력적 의사소통	3	.946
	창의적 문제해결력	4	
	혁신적 업무행동능력	4	
		11	
창업의지		4	.884
총합			67문항



<그림 2> 연구도구 설계

3.4. 실험/통제 사전-사후 통계결과 분석

창직교육 프로그램을 처치한 실험집단은 검증 시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값의 상승을 보였다. 통제집단은 사전/사후의 평균값이 미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력, 창의성역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창업의지가 매우 두드러지게 향상된 반면에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비교하여 자기주도 학습력, 창의성역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미미하게 향상지만, 창업의지는 감소하였다. 통계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통계분석 결과

	실험집단 (N=293)		통제집단 (N=85)		F	유의 확률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2.24	46.52	42.45	43.36	104.39	.000
대인관계기술	22.57	24.68	22.13	23.00	142.96	.001
자기주도 학습력	44.47	52.49	46.47	48.81	191.74	.002
기업가정신	26.13	28.41	25.31	26.19	98.65	.001
기회발견	14.34	16.03	13.36	13.88	72.04	.000
기회활용	14.37	15.98	13.92	14.61	90.54	.003
사회적문제 해결력	22.81	24.73	22.94	23.40	135.82	.004
창의성역량	40.91	44.75	40.01	40.76	173.29	.000
창업의지	12.37	13.94	13.94	12.22	102.07	.002

IV. 결론

본 연구로 창직교육을 통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를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성역량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를 향상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진로교육을 처치 받거나 창직교육을 처치 받지 않은 통제집단은 교육효과가 미미하거나 저하되었다. 이는 창업의지 향상을 위한 교육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력, 창의성역량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반증하며, 창업의지를 향시키기 위한 청소년 진로교육에서

창직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미래진로에 보다 적합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현·정선영·이우진(2018).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역량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김대수·이종완(2019).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상업교육연구*, 32:3, 169-193

김철희 외 12명(2017). 미래 일자리 대응 직업능력개발 발전 전략, 기본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홍 (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미래창조과학부·미래준비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2017). 10년 후 대한민국 일자리의 길을 찾다. *미래일자리 환경 변화 5대 트렌드*. p.53.

이선행·황혜정(2018). 해결중심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경기대학교

이승구·백운미(2016). 청소년을 위한 창직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자료, 한국잡월드

이지연·김재희·이서정(2017). 해외 진로개발 정책과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발전 방안, 기본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한규(2016). 사회적자본이 창직동기 및 창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송은주·강양은·서나량·정은진(2018). 2018 초·중·고·대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발표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대성 (2003). 한국과 미국의 창업교육 비교를 통한 한국 벤처 창업 교육전략 수립.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8(1), 129-139.

진미석 외 (2010). 창의적 진로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희정(201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학생 발달 변화 분석, 기본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2014a). *청년층 창직가이드*, 2015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

Katz, J., & Gartner, W. B.(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Ronstadt, R.(1984). Ex-entrepreneurs and the decision to start an entrepreneurial career.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2, 437-460.

Scott, M. G., & Twomey, D. F (1988). The long-term supply of entrepreneurs: students' career aspirations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4), 5-25.